제510호 天主敎 全州 敎區報 1982. 8. 29 (1)

연중 제 22 주일

기도서 425 면
제1독서 : 신 명 4,1—2.6—8
제2독서 : 야 고 1,17—18.21b —22.27
복 음 : 마 르 7,1—8a.14—15.21—23

숲정이

발 행 천주교전주교구
편 집 사 목 국
인 쇄 관 리 국

편집실 : 전주시서노송동560~6 전주 교구청
☎ ③ 5098 ③ 3201

□ 강 론

경천인애(敬天人愛)

박 찬 길 신부

오늘 복음에는 유대교의 정결례에 대한 예수님의 견해와 초대교회 및 복음작가의 견해가 두드러지게 드러나고(1-5, 14-15, 17-23절), 아울러 마음과 행실이 일치하지 않는 위선자들에 대한 말씀이 기술되어 있다.

하느님의 법의 본질을 경시하면서 그 외적 준수만을 규정한 종교법 조항을 경고하는 내용이 그 골자이다.

식사 전에 손을 씻는 규정은 모세법으로서 성서에 기록되어 있는 규정이 아니고, 후대에 랍비들이 추가한 전통이었다. 바리사이파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이러한 피상적인 관습들이 하느님의 법 자체보다도 더 중요한 것으로 여겨지게 되었다. 그래서 예수께서는 이사야 예언서를 인용하여 대꾸하셨다.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여도 마음은 나에게서 멀리 떠나 있구나. 그들은 나를 헛되이 예배하며 사람의 계명을 하느님의 것인양 가르친다"(이사야 29, 13)

식사전에 손을 씻고 안씻는 것은 위생상의 문제이지 사람됨을 근본적으로 결정짓는 중대사가 아니라고 예수께서는 단정하셨던 것이다.

음식에 관한 규정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이다. 정결한 음식과 불결한 음식을 구분하는 규정을 예수께서는 철폐하셨다. "무엇이든지 밖에서 몸 안으로 들어가는 것은 사람을 더럽히지 않는다. 더럽히는 것은 도리어 사람에게서 나오는 것이다."

결국 한 마디로 요약하자면 예수께서는 우리를 율법에서 해방시키셨다. 사도 바울로는 빛나는 예지로 이 사실을 이렇게 설파하였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셔서 우리는 자유의 몸이 되었읍니다. 그러니 마음을 굳게 먹고 다시는 종의 멍에를 메지 마십시오"(갈라 5,1)

그러나 국법이나 사회의 인습 그리고 교회의 현실을 볼 때 얼마나 많은 '종살이 멍에'가 우리를 속박하고 있는가?

질서를 위해서는 규법이 필요하고, 규법이 없으면 혼이하게 되는 것이 인간이다. 다만 규법의 필요성은 인정하되 경천인애에 도움이 되는 규법만 필요하다고 답변할 수 있겠다. 사랑의 법에 도움이 되지 않는 규법은 그 존재가치를 자동적으로 상실한다. 사람을 사람되게 하는 원리는 사랑과 사랑에서 파생한 가치들 뿐이기 때문이다.

(창인동 성당 보좌신부)

참으로 슬픈 이야기

—부산시내 공장에서 야간작업을 하는 일부 여공들이 잠을 쫓기 위해 중독성이 강한 각성제를 상습 복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같은 사실은 지난 11일 강도살인 혐의로 부산 영도경찰서에 구속된 윤모양(17)에 대한 경찰 조사 과정에서 밝혀졌다.

윤양에 따르면 자신은 지난 79년 봄 영도구 동삼동 Y어망에 근무할 때 김모양(17), 최모양(17)등 동료 10여명과 함께 야간작업 때마다 피로와 잠을 쫓기 위해 한알에 40원씩 주고 각성제를 사서 하루 1~2알씩 복용해왔는데, 많은 동료들이 예사로 복용하고 있다는 것.

윤양은 또 지난 81년초 K어망으로 직장을 옮기고 난 후에도 계속 각성제를 복용해 왔으며, 한때는 하루 5알이나 한꺼번에 먹어 실신한 적도 있다고 말하면서 이 약을 먹은후 다음날 낮에 잠이 오지 않고 두통이 심해 고생을 하기도 했다고 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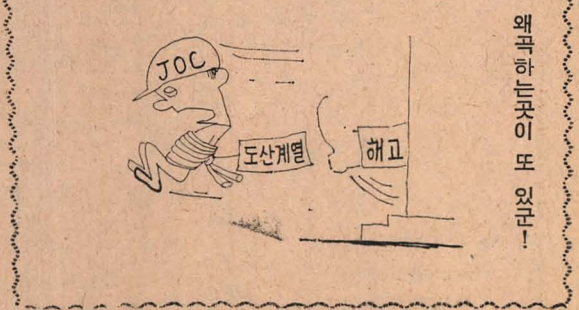
이들이 복용한 각성제 설명서에는 주의사항으로 「이 약을 상용시 불안, 불만 등의 증세도 나타날 수 있다」고 표시돼 있다.

윤양은 지난 6일 상오 10시께 영도구 동삼동 미창석유 앞 해안에서 동료 김모양(14)을 바다에 떼밀어 숨지게한 후 김양의 백속에 든 월급봉투에서 현금 6만8천원을 꺼내 달아났다가 불잡혔다. —

위 이야기는 지난 8월 20일자 신문기사이다.

한참 꿈을 키워야 할 소녀가 어쩌다가 그리되었다는 이야긴가. 누가 책임을 져야 할 일인가. 몇푼 되지않는 봉급을 받겠다고 각성제로 잠을 쫓아야 했고, 다음날은 두통에 시달리고, 끝내는 어린 동료를 물에 빠뜨려 죽이고 가방에 든 돈을 훔쳐야 했던 이야기는 결코 남의 이야기만으로 돌릴 수도 없다. 눈을 좀 감고, 묵상 좀 해보자.

숲 정 이 산 책



□ 200주년 준비특집(5)

200주년은 정신운동으로

한국 천주교회 200주년은 우리 교회에게 쇄신을 줄 수 있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 그렇다면 무엇보다도 200주년을 준비하는 우리들에게는 정신운동이 필요하다. 200주년 정신운동은 신도들에게 200주년의 의미를 일깨워 주고 신앙심을 돋더 각성시켜 교회의 쇄신을 추구하는 운동이 되어야 한다. 이러한 200주년 정신운동의 추진을 위해서는 여러분의 고견을 기대하며 다음과 같은 제안을 할 수 있을 것이다.

① 기도운동 : 200주년을 뜻깊게 맞이하고 200주년의 모든 사업이 성공적으로 성취되기 위해서는 신도들의 기도가 절실히 요청된다. 따라서 교회 전례 때에 200주년 기도문이 바쳐져야 한다. 그리고 200주년 기도문 이외에도 묵주신공을 비롯한 각종의 기도가 동일한 지향으로 바쳐져야 한다.

② 성서운동 : 성서는 우리 신앙의 가장 중요한 원천이다. 따라서 우리의 신앙을 드높이고 튼튼히 하기 위해서는 성서에 대한 이해가 절실히 요청된다. 따라서 200주년을 준비하고 신도들의 신앙에 있어서 튼튼한 기초를 제공해 주기 위한 성서운동의 전개가 필요하다.

③ 전례운동 : 전례는 교회 공동체의 중심적 의례이다. 세계 교회사를 볼 때 전례 쇄신운동은 교회에 활력을 불어넣어주고 교회의 쇄신을 가능하게 해주었다. 우리 교회의 쇄신을 위해서는 새로운 전례 운동이 필요할 것이며 이를 통해 신도들은 전례 공동체에 대한 소속 의식을 강화시켜 나갈 수 있을 것이다.

④ 교회재일치운동 : 바티칸 공의회의 정신을 따라 교회재일치 운동이 200주년 정신운동의 일환으로 전개되어야 한다. 이는 한국에 크리스티아니즘을 200여년 전에 처음으로 전해준 우리 신앙의 선조들이 남겨준 공덕에 대한 보답이 될 것이다. 그들은 하나로 일치된 교회를 원했을 것이다.

⑤ 신심단체 및 운동체의 활성화 : 각종 신심단체 및 운동체를 한국 교회의 전통과 접목시킬 필요가 있을 것이다. 이를 위해 기존의 각종 단체와 운동체에 한국 교회사상의 의미를 확인하는 작업이 요청된다.

⑥ 표준 교리서 편찬 : 교회를 모르는 일반인을 위한 표준 교리서 편찬 작업이 필요하다. 일반인들에게 특히 예비자에게 정신적 생명력을 부여해 줄 수 있는 이 작업은 정신운동의 분야에서 추진되어야 마땅하다.

⑦ 한국 교회사 교육 : 한국 교회의 전통을 알려주고, 신도들에게 한국 천주교회의 일원이라는 자각을 주기 위해서는 한국 교회사에 관한 교육이 요청된다.

고운 추억을
만들어 보세요
전 일 관 광
전 화 ⑧ 6666~8
조 (안토니오)선
박 (가브리엘)용 이
안내합니다

주단·포목(혼수·회갑옷감)도매상
각종 솜, 이불(밍크)카데지 도매상
서 울 주 단
전화 ③ 0453
전주 중앙성당 정문 옆
김 안토니오

숲정이 500호 기념집을 읽고

심 금 숙

오늘날 우리가 처해 있는 현실을 냉철하고 진실하게 대변하는 글을 대하기란 참으로 어렵다. 신문·잡지는 많아도 참된 언론이 없고, 지식인은 흔해도 지성인은 드문게 우리의 현실이라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이러한 때 숲정이 500호 기념집을 읽고 감동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은 아마도 이 책에서 찾은 그 깊은 진실함에의 반가움과 외로운 외침에 공감한 때문이 아닌가 생각된다.

이 황량한 시대에 우리가 하루하루를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명료하게 일러주는 사제강론, 알기 쉽게 풀이된 전례와 교리 해설, 교우들의 신앙 생활의 모습, 더우기 국내외적으로 격변의 시기였던 지난 10년 동안에 오로지 진실만을 위하여 의연히 투쟁해 온 전주 교구의 수난사를 한 눈에 볼 수 있도록 망라된 '숲정이 기념집'이야말로 이 시대의 산 기록이요, 증인이라 할 수 있겠다. 비록 지나간 시간에 일어난 사실, 엮어진 글이지만 과거의 것으로서만이 간과 될 수는 결코 없고 오늘, 그리고 내일로 이어지는 가톨릭 정신의 밑거름이라고 생각한다. 또한 순교의 피로 얼룩진 이 고장 가톨릭인들의 숭고한 넋을 기리지 않을 수 없었던 것도 이 책이 주는 특징 중의 하나다.

본 독자로서는 이 책이 평신도에게는 믿음의 심화자료로서, 예비신자에게는 교리 공부의 지침서로서, 그리고 이교도에게는 복음의 자료로서 귀중한 가치를 갖는다고 믿어 마지 않는다. 거침없는 필치의 흔쾌함과 가슴 뿌듯한 사랑을 많은 교우 혹은 독자들과 함께 나누고 싶다.

◎ 중·고 교리 경시 대회 실시

(모범 답안고지)

지난 22일 교구 중·고연합회에서는 전 본당 학생들을 대상으로 일제히 교리 경시 대회를 개최했다. 금번 교리 경시는 특별히 한국 천주교회사를 출제 범위로 대세워 200주년을 앞두고 우리 학생들에게 선조들의 신앙과 순교의 얼을 다시 한 번 일깨우게 했다.

다음은 본 경시 대회의 출제에 따른 모범 답안이다. 많은 참고 바란다.

1	②	2	②	3	③	4	②	5	④
6	②	7	②	8	②	9	④	10	②
11	③	12	②	13	⑤	14	①	15	④
16	○	17	×	18	○	19	×	20	○
21	이승훈(베드로)	22	200	23	신해	24	신유		
25	기해	26	병오	27	병인	28	1831		
29	유항검(아오스딩)	30	1937	31	박정일(미카엘)				
32	진산	33	정해	34	이봉금(아나다시아)				
35	유대철(베드로)	36	103위						
37	조화서(베드로) 이명서(베드로) 정원지(베드로) 정문호(발도로메오) 손선지(베드로) 한원서(베드로) 조윤호(요셉)								
38	정약종 주교요지	39	14						
40	중 : 김대건(안드레아) 고 : ① 우리나라 최초의 서양 사정 정통자 ② 우리나라 최초의 洋語 체득자 ③ 우리나라 최초의 유학생 ④ 우리나라 역사상 최장의 장거리 여행자								

□ 전주 숲정이 새 성당 축성

땡볕이 내리쬐는 19일 한낮 2시부터 장장 3시간여, 마침 주임 이 대권 신부님의 회갑축하까지 겸한 본 성당 축성식이 박 주교님 주례로 각지에서 모인 신부님들과 수녀님, 기관장님들 그리고 천여명이 넘는 교우들의 축복속에 성황리에 펼쳐졌다. 아마도 처음부터 꿀벌의 역사를 다짐한 이 날이었기에 교우들의 환성과 감격도 더욱 크고 진한것 같았다.

숲정이 성당은 1,300여 신도에 거의 순수 자체헌금과 본당 교우들의 열과 성, 그리고 집념으로 이룩된 정말 귀한 전당이라고 밖에 더 표현할 길이 없다. 성당, 유치원, 수녀원 등 총385평에 1억 1천이 넘는 공사비, 참으로 숲정이 교우들은 대단했다. 신부님과 수녀님 그리고 고마운 형제 자매들께 심심한 경의와 축하와 성원의 박수를 가득 보내마지 않는다.

□ 익산농원 진료소 및 수녀원 준공

재생의 삶을 다지고 있는 이곳 나환자 정착촌, 삼례본당(주임 황 인규 신부) 소속 익산(왕궁)농원에 대망의 진료소와 수녀원이 준공되어 지난 20일 박 주교님을 비롯 많은 성직 수도자와 지역기관장 그리고 500여 교형들이 참석한 가운데 성대한 축하식을 가졌다

본 건물은 상록수회(김 창석 신부)에서 구입해준 210평의 대지위에 총 42평의 아담한 진료소를 겸한 수녀원으로 단장되었는데 공사비(총 2,350만원)는 한국 나사업연(1천만원)과 동정성모회 총원(4백만원), 이리 성모병원(300만원)의 특별지원을 받아 이곳 주민들의 땀과 노력으로 낙성을 보게 된 것이다.

앞으로 이곳에서는 동정성모회 수녀들의 봉사와 헌신으로 환자 치료는 물론 탁아소까지 개설, 사랑과 복음을 심으며, 지역사회 개발에도 큰 몫을 차지할 것이라는 기대에 가득 부풀어 있다.

□ 상관 천주교회 강당 낙성

지난 22일 상관본당에서는 교우들의 염원이었던 새 강당(교리실, 사무실 포함)을 신축, 주교님을 모시고 대 봉헌잔치를 벌였다.

빈촌에 힘겨운 과업임을 각오한 출발이었지만, 원로 주임 이 상호 신부님의 간곡한 호소에 전임지(전동, 복자, 부안 등) 교형들과 본당 신도들의 피나는 헌금으로 1,000여만원을 들여 40여평의 산뜻한 회관을 마련하게 된 것이다. 모두에게 깊은 감사드린다.

□ 전자오르간을 기증받은 서학동·삼례 본당

성모 승천 축일을 맞이하여 서학동 성당 성심부녀회 회원(22명, 회장 윤 수산나)과 삼례 자모회에서는 전자오르간을 본당에 기증하여 하느님께 더 아름답고 장엄한 찬미의 노래를 드릴 수 있게 되었다. 어느 가정이든 제일 어려운 일에서부터 쉬운일 좋은일 궂은일 등 어머니의 손길이 닿지 않는 일이 없다. 서학동 성심부녀회와 삼례 자모회 회원은 본당에서 어머니의 역활을 도맡아 본당 행사 및 학생교육의 뒷바라지까지 아낌없는 봉사를 하고 있다. 이 회들은 매월 정기모임을 가져 회원간의 우의를 돈독히 하고 성경연구로 신심을 높이고 있다. 회원 여러분들께 하느님의 축복 가득하시길 기원한다.

요십이 (473) 김병오

의료 효과의 선구자!
神秘 食品, 土龍
W.B.S
(각종 간(肝)질환에 특효)
성모 土龍 쎈타
(聖 베네딕도 수도원 제조)
전북총판 : 성모병원 3층 309호
전화 ②8091
정읍영업소 : 정주시 전화국앞
전화 6372
김 미 카 엘

(SS) FASHION
三星物産 전주특약점
신사복·영국모드
버 킹 검
간이복·성인용
아동용·주니어
위 크 엔 드
세계적인 코트의 명문
런 던 포 그
(주) 유 울리안나
전주시 중앙동 3가 96—2
삼화약국 옆
전화 ② 4451

전주 꽃 직매장
진선미 꽃집
꽃꽂이 수강생 모집
조화(종이꽃) 대여
전화 ② 2628
이 마리아(명자)
범 띠또(덕배)

금·은·보석·시계는
금 보 장
장(방지거) 채(마리아)
전주 남문옆
(대지목욕탕 입구)
전화 6—4989(사구팔구)

제 4 지구 각 본당 소식

공지사항

1. 사제 총회 : 일시—8월 30일〈월〉 오전 10시 30분, 장소—가톨릭 센타 회의실
2. 교리교사 월례회 : 4지구—8월 30일 오후 6시 복자성당, 1지구—9월 5일 오후 2시, 신태인
3. 4지구 주일학교 단체 영화관람 : 일시—9월 1일(오후프로), 제목—십계, 장소—전주 코리아 극장
4. 200주년 기념주일 : 9월 5일은 200주년 기념행사를 성공적으로 치르기 위하여 제정된 주일입니다
   ※ 특별헌금 있읍니다
5. 축! 영명 : 9월 4일—모이세 이상섭 신부님

(중앙)

전화 ⑤1711~3
주임 신부 문 정 현
보좌 신부 박 인 호
사도 회장 김 인 협

※ 성경읽기 : 고린토 전서 1~10장, 루가복음 1장~6장
1. 프란치스코 3회 : 오후 2시 강당
2. 성전 신축기금 신입해주신 분께 감사드립니다
   정계순·변현구·허인업(각 5만원), 김유순(20만원)
   박봉수(3만원), 한귀석(50만원)
   총계—80,798,000원
3. 본당신부님 영명축일 : 물심양면으로 협조해 주신 형제 자매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4. 9월 5일은 한국선교 200주년 기념주일입니다
   순교 선열들의 믿음을 이어받아 이땅에 구원의 빛을 새롭게 하기 위한 84년 200주년 기념 준비사업에 협력하는 마음으로 준비된 봉투에 정성껏 봉헌하세요
5. 복자반 영세식 : 9월 12일에 있읍니다
   많이 기도해 주세요

□ 지난주 봉헌금 : 721,836원 교무금 : 322,500원

(노송동)

신 부 ⑤0969번
수·사 ②7032
주임 신부 김 정 원
보좌 신부 박 성 팔
사도 회장 이 홍 재

1. 축! 유아 영세식 : 31일〈화〉 어머니미사 후
2. 예비자 교리안내 : 일반—매주〈일〉 공식미사 후, 남자반—매주〈목〉 저녁미사후, 학생반—매주〈토〉 오후 4시
3. 금주의 성경읽기 : 신약 마테오복음 전체
4. 주일학교 어린이 성가연습 : 매일 저녁 6시30분
5. 성령기도회 : 매주 금요일 오후 2시~4시까지
6. 젠 모임 : 매주 토요일 오후 5시,
   젠 미사—매주 일요일 오전 9시
7. 대학생 모임 : 매주〈금〉 저녁미사 후
8. 특별헌금 : 중노2가—박세옥(헤레나) 8만원

□ 지난주 봉헌금 : 375,820원 교무금 : 317,700원

(덕진)

전화 ③2182번
주임 신부 서 석 기
보좌 신부 안 철 문
사도 회장 양 상 열

1. 월례회의 : 진복회, 부녀회 꼭 빠지지 마세요
2. 사도회 월례회의 : 다음주 임원님들 꼭 참석하세요
3. 예비자교리 시작 : 금주까지 접수마감
   다음반 접수 시작
4. 젊은이들의 모임 : 성서, 생활화를 위한 모임입니다
   함께 할 젊은이들을 기다립니다
5. 확단 제초작업일 : 30~31일
6. 주일 미사시간에 늦지맙시다
   성서, 성가집 꼭 지참 바람
7. 비품은 꼭 제자리로 돌려 놓읍시다

□ 지난주 봉헌금 : 574,360원

(복자)

전화 ②5238번
주임 신부 김 종 택
사도 회장 조 성 호

※ 9월은 복자성월
1. 사도회 : 오늘 저녁미사 후
2. 첫 첨례 5 : 2일 저녁 8시
   첫 첨례 7 : 4일 저녁 8시
3. 선교 200주년 주일 : 5일(다음주일)
4. 복자부녀회 : 6일〈월〉 어머니미사 후
5. 차주전례 : 해설—안경례
   독서—①김성원 ②유기순

□ 지난주 봉헌금 : 363,425원

(서학동)

전화 ②2276번
주임 신부 김 병 환
사도 회장 황 인 구

1. 사도회 월례회 : 다음주 공식미사 후
2. 어머니 성서모임 : 9월 첫주부터 시작
3. 예비자교리 : 다음주일부터
4. 주일학교 개학 : 9월 4일부터(토요일 오후 2시)
5. 80년도 영세자 특별교리 : 9월 6일~10일까지
   (저녁미사 후 8시부터)
   대부 대모님들께 협력바랍니다
6. 다음주 전례담당 : 독서—①김한기 ②김수길

□ 지난주 봉헌금 : 258,526원 교무금 : 219,000원

(숲정이)

전 화③7366 주임 신부 이 대 권
수·유③9567 사도 회장 김 수 겸

1. 9월은 복자성월 : 매 미사후 성월합니다
2. 누깔다 부녀회 월례회 : 9월 4일
3. 사도회 월례회 : 9월 5일 공식미사 후
4. 요안회 월례회 : 29일 공식미사 후
5. 차주 전례담당 : 해설—이철수,
   독서—①이원길 ②강원모, 기도—강 삼
6. 미사참례자 안내 : 나홍덕, 문스멜라, 정공순, 이정숙, 이은자

□ 지난주 봉헌금 : 474,250원

(전동)

전화 신부 ⑥6208 주임 신부 김 병 엽
사무 ②3222 보좌 신부 박 병 준
수녀 ②8347 사도 회장 이 종 두

1. 사도회 : 다음주 공식미사 후
2. 유아세례 : 다음주 8시30분 미사후
3. 성가정회 : 9월 1일 오후 2시
4. 자모회 피정 : 9월 7일
5. 주일학교 성지순례 : 9월 12일, 미리내, 자연농원
   학생—3천원, 학부형—5천원
6. 젊은이 성가대 : 유능한 반주자 구합니다
7. 학사님 :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읍니다
8. 숲정이 500호 기념집 발간 : 사무실에 숲정이 500호 기념집이 발간되어 있읍니다. 많은 애독바랍니다
9. 다음주 전례담당
   아침미사 : 해설—박종구, 독서—①이헌재 ②범덕배
   공식미사 : 해설—양현홍, 독서—①장금태 ②백종흠
   저녁미사 : 해설—경양수, 독서—①김동수 ②이승호

□ 지난주 봉헌금 : 560,420원

(파티마)

신부 ②0915 주임신부 김 영 일
수녀 ③4804 사도회장 황 희 상

1. 오늘 하안또니오 신부님의 특별강론이 있읍니다
   (푸른 군단 지도신부)
2. 유아세례 : 오늘 3시30분 미사후
3. 기사회 : 다음 토요일 오후 2시
4. 사도회 월례회 : 다음주일
5. 9월 복자축일에 영세식이 있을 예정이오니 예비자들은 교리반에 열심히 참석하시기 바랍니다
6. 새 복사단원 : 축하하면서 자기 정한 날에 빠지지 말기를

□ 지난주 봉헌금 : 208,790원 교무금 : 388,000원

*인 쇄 : 전 주 보 광 출 판 사 ☎ ③7440